

민주화 이후의 자본주의, ‘축적하라! 1987’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을 중심으로

서희원*

요약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은 판타지 계열의 작품이지만, 세계의 경험적 기물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현대 판타지이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은 시간 이동을 통해 얻게 된 인생의 기회를 좀더 나은 세계를 창조하거나 세계의 비참을 만든 역사적 참사를 예방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문학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는 세계를 바꾸는 혹은 시간의 어긋남을 교정하는 정의로운 시간 여행자가 아니라, 역사적 위기—특히 경제적 위기—를 자신의 이익으로 환원하려고 세계의 미래를 전쟁을 통해 경험한 역사에 교정시키는 주인공이다.

게다가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은 경제적 이해득실을 윤리나 정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재탄생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인간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대한 이익 공동체, 즉 재벌의 총수로 등극하는 것을 추구한다. 『재벌집 막내아들』이 알려주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되어버린 신자유주의의 냉혹한 풍경이 아니라 이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력자의 성장과 완성, 그가 습득하는 인간을 사용하는 통치술의 방식이다. 그리고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진정한 권력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의 영역에서 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지만 한국의 국가권력을 장기간 독점했던 군사 정권의 퇴진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변모시킬 ‘민주화’이다. 이것이 『재벌집 막내아들』의 회귀가 1987년에 시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제어: 웹소설, 시간과 이야기, 재벌, 민주화 이후의 자본주의, 호모 에코노미쿠스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강의초빙교수

목차

1. 새롭게 열린 '문학의 도살장' 그리고 웹소설의 독자
2. 돈에 대한 사랑, 자본주의의 절대적 로맨스
3. 역사를 수정하지 않는 시간 여행자
4. 민주화 이후의 자본주의 그리고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통치술

1. 새롭게 열린 '문학의 도살장' 그리고 웹소설의 독자

2022년 한 매체에 실린 기사는 시간이 갈수록 성장을 거듭하는 웹소설의 규모를 이렇게 서술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경 100~200억으로 추산되었던 웹소설 시장은, 작년 2021년에는 6,000억원 규모로, 최대 60배로 성장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20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웹소설 플랫폼의 연평균 증가율은 25%에서 최대 40%에 달한다. 웹소설 시장의 성장세에는, 누구나 웹소설 작가가 될 수 있다는 특성이 뒷받침한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웹소설 독자들의 수는 1,000만을 넘어섰으며, 웹소설을 창작하는 작가들은 2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¹⁾ 시장 규모 6,000억원, 웹소설 플랫폼 연평균 증가율 최대 40%, 웹소설 독자 1,000만 명, 웹소설 작가 20만 명. 대개 이런 기사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 과장된 수치를 집어넣는 경향이 종종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 감가상각하여도 웹소설 분야의 성장은 해가 갈수록 축소되는 출판시장과 비교할 때 엄청난 수치인 건 분명하다.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된 웹소설 독자와 작가는 단순한 수

1) 박민호 기자, 「웹소설 시장 6,000억원 시대… 웹소설 교육의 현황은?」, 『뉴스페이퍼』, 2022.8.17.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cxno=77070> (검색일 2023.4.22.)

치의 증가가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가능성과 급격한 변화를 문학의 영역에서 생성시키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산업혁명 당시 런던의 인구 집중과 밀집, 그리고 이것이 발생시키는 가능성의 확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인간 250만 명을 한 곳에 몰아넣는 이런 어마어마한 집중화는 이 250만 명의 힘을 100배로 강화하고, 런던을 세계의 상업 수도로 밀어올리고, 커다란 선거(船渠)들을 건설하고, 템스 강을 끊임없이 뒤덮는 선박 수천 척을 불러모았다”고 썼다.²⁾ 발터 벤야민은 20세기 새롭게 등장한 테크놀로지로 인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예술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술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예술사에 혁명적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대중은 예술작품을 대하는 일체의 전통적 태도가 새로운 모습을 하고 다시 태어나는 모태(matrix)이다. 양은 질로 바뀌었다. 예술에 참여하는 대중의 수적 증가는 참여하는 방식의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썼다.³⁾

웹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적 현상 주변으로 밀집하는 자본과 작가들과 독자들, 독자에서 작가로의 빠른 전환이 가져오는 역동성, 엄청난 규모로 생산되는 텍스트와 치열한 경쟁, 그것이 만들어내는 폭발력은 향후 한국 문학의 변화를 촉진하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인용한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벤야민은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몇 가지 변화를 지적했다. 하나는 양적인 확장이 가져오는 질적인 향상이며, 다른 하나는 참여하는 방식의 변화이다. 벤야민은 양적인 팽창과정의 초기에는 부정적인 형태의 참여방식이 유행한다고 하며, 이를 대중이 예술을 소비하는 ‘정신분산(Zerstreuung, distraction)’의 태도라고 지칭하였다. 역사적 전환기에 당면한 대중은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정보를 대도시적 삶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고, 이러한 지각의 포화를 견딜

2) 프리드리히 엥겔스, 이재만 옮김,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 라티오, 2014, 63면.

3)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제2판)』,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사건의 작은 역사 외-발터 벤야민 선집2』, 2007, 89-90면.

수 없기에 예술을 하나의 오락으로 간주하며, 여기서 과도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정신분산’의 효과를 찾는다는 것이다. 웹소설이 가진 스낵컬처적 특성이나 독자의 흥미나 욕망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오락적 특성을 지적하는 연구들의 주장도 대개는 벤야민의 지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경애는 웹소설이 ‘읽는’ 소설에서 ‘보는’ 소설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독서 태도에서 찾을 수 있는 의식의 변화는 “현실을 이리저리 건너뛰면서 손가락을 다투는 현대 문화의 빠른 속도”에서 기인한다고 쓴다. 즉, ‘보는’ 소설로의 전환은 웹소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전략적 변화이며, 웹소설의 상업적 성공은 “각박한 생활 속에서 지금, 여기, 현재의 행복을 즐기려는 현대인의 요구와 모바일 기술, 그리고 현대 문화산업이 만나 이룬 결과물”이라는 것이다.⁴⁾ 김휘빈 역시 현대인들은 노동의 스트레스와 치열한 삶의 경쟁 때문에 “극히 흥미 위주로 쓰인 가벼운 장르소설조차” 쉽게 읽을 수 없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쓴다. “웹소설에서 쉬운 단어와 명료한 문장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사회적인 맥락과 함께한다. 소재는 이 시대의 욕망을 투영하고, 욕망은 피로와 고통을 대변한다. 마찬가지로 전달 방법 역시 시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⁵⁾

지금의 웹소설이 양적인 팽창과정에 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고, 상업적 측면에서 발견되는 가능성을 장사꾼의 방식처럼 찬미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의 특징이 ‘정신분산(오락)’에 있다고 해서 이를 비난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서사나 형식의 단점만을 거론하는 것 역시도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프랑코 모레티는 개별 작품을 집중해서 읽는 방식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시선—모레티는 이를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라 부른다—으로 유럽 소설의 발생과 발전을 통찰하며 소설의 이론에 대해 말하는 글에서 18세기 소비사회의 탄생과 함께 유럽

4) 김경애, 「‘보는’ 소설로의 전환, 로맨스 웹소설 문화 현상의 함의와 문제점」, 『인문사회21』 8권4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1381면; 1382면.

5) 김휘빈, 『웹소설 작가 서바이벌 가이드』, 이마, 2017, 167면.

소설이 엄청난 양적 발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렇게 쓴다. “소비사회의 탄생은 유럽 소설에 무엇을 의미했는가? 더 많은 소설들과 더 떨어진 집중력, 독서의 새로운 방식의 논조를 결정한 것은 싸구려 대중소설이었지 헨리 제임스가 아니었다.”⁶⁾ 모레티는 매해 엄청나게 출간되는 소설의 숫자와 정전으로 기록되는 극히 소수의 작품이 가진 지독한 수치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소비사회의 출판시장을 “문학의 도살장”이라고 불렀고, “그 도살업자는—독자”라고 분명하게 지칭하였다.⁷⁾ 엄청난 숫자의 텍스트를 모두 읽는 것도 불특정 다수인 독자이고, 다른 도서 목록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할 소설의 목록을 전달해주는 것도 독자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살아남는 극소수의 텍스트를 정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정전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구자나 대학의 몫이 아니라 독자라는 것이다. 모레티가 예시한 사례를 참조하자면, 1750년에서 1770년 사이 독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의 목록과 이후 문학적 정전이 된 텍스트의 목록은 거의 일치한다.

2023년 현재 무수한 작품이 연재되고, ‘도전작’이라는 이름으로 작가 지망생의 창작물이 게재되며, 소재와 형식에 대한 경계 없는 참조와 혼용, 장르적 변형과 파괴, 모방이 따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웹소설의 플랫폼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문학의 도살장’이며, 수많은 텍스트들이 변화한 매체성에 적응하며 우세종이 되기 위해 쟁투하는 서사의 거대한 생태계이다. 모레티의 방식이 맞다면, 소설과 독자, 소설의 새로운 형식이나 독서의 방식을 탐구하기 위해 읽어야 할 것 중 하나는 분명 웹소설이다. 하지만 그 엄청난 숫자의 텍스트 중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문학의 도살장에서 근무하는 도살업자는 독자이고, 그의 성실한 작업은 휴일 없이 거의 24시간 진행된다. 이 과정을 통과해 살아남은 소수의 작품들 중 운이 좋은 몇몇이 이후에도 살아

6) 프랑코 모레티, 김용규 옮김, 「소설 역사와 이론」, 『멀리서 읽기』, 현암사, 2021, 253면.

7) 프랑코 모레티, 「문학의 도살장」, 위의 책, 102면.

남아 정진이 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웹소설이 가진 장르적 특징과 서사적 구조, 그것이 독자에게 주는 독서의 매력을 고찰하기 위해 세밀하게 읽고자 하는 웹소설 텍스트는 산경 작가의 『재벌집 막내아들』이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웹소설의 영향력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지표, 조회수, 인기의 지속성, 웹소설-웹툰-드라마나 영화 제작이라는 다양한 매체적 재생산을 통한 독자의 확대 등에서 대표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텍스트 중 하나이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웹소설 연재 사이트 ‘문피아’에서 2017년 2월 20일부터 2018년 1월 11일까지 총 326화 연재되는 동안 독자들의 선호도를 알려주는 ‘투데이 베스트’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흥행 작품이며, 이북(eBook⁸⁾과 단행본⁹⁾으로 출간되어 의미 있는 판매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2023년 4월 현재 『재벌집 막내아들』이 서비스 되고 있는 여러 플랫폼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문피아’,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 페이지’만을 놓고 본다면, 조회수는 각각 ‘문피아’ 3,780만, ‘네이버 시리즈’ 4,663만, ‘카카오 페이지’ 5,298만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지속적인 인기는 원작 자체가 가진 대중적 매력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된 동명의 드라마—JTBC에서 2022년 11월 18일부터 12월 25일까지 방영—와 웹툰—네이버 웹툰에 2022년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연재 중—을 통해 화제성이 지속되고 있

8) 박지희는 『재벌집 막내아들』의 e-book—박지희의 글에는 e-book이라고 표기되어 있진 않으나 인터넷 도서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e-book으로 확인된다—이 2017년 KW북스에서 출간된 이후 드라마 방영의 인기를 통해 2022년 JHS BOOK에서 재출간 되었으나,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장면(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대화 속 과격한 표현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판본임을 알려주고 있다. 현재 문피아,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시리즈에 업로드된 작품은 JHS 판본이며, 수정 전 원본의 경우는 확인하기 어렵다 한다. 박지희, 「한국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시대 현실 재현 양상 연구」, 『인문콘텐츠』 66, 인문콘텐츠학회, 2022, 157면.

9) 산경, 『재벌집 막내아들 1-5』, 테라코타, 2022. 이 글에서는 출간된 단행본을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앞으로 이 판본에서의 인용은 간략하게 권수와 면수만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벌집 막내아들』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과 흥행이 알려주는 것은 이 텍스트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나 그것의 감정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욕망의 문제와 깊게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박지희는 『재벌집 막내아들』이 가진 회귀물 서사의 특성에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후회와 자기계발의 에토스”를 발견하며, 올바른 기업가상을 설파하는 서적과는 구분되는 “영악하게 자기 잇속을 챙길 줄 아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모습에서 독자들이 느끼는 희열을 열광적인 반응의 원인으로 지적한다.¹⁰⁾ 이시성은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독자들이 대리 충족하고 있는 욕망의 모습을 “성과사회와 그 안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성과주체인 우리의 초상”으로 읽어낸다.¹¹⁾ 전철희는 『재벌집 막내아들』을 세습제와 카지노 자본주의로 전락한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고발”로 독해한다.¹²⁾ 현재까지 『재벌집 막내아들』에 대한 분석이 알려주는 것을 요약하자면, 그것이 신자유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욕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은 텍스트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분석의 최종 귀결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판단된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은 『재벌집 막내아들』만이 가진 특성이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의 발흥 이후 등장한 거의 모든 문학 작품에 투영된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재벌집 막내아들』에 담긴 자본주의적 욕망과 그 축적의 구조를 세밀하게 독해하며 이것이 다른 작품들과 다른 방식으로 분기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닐까 한다.

『재벌집 막내아들』을 독해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이 텍

10) 박지희, 앞의 글, 169면.

11) 이시성,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이 보여주는 성과주체의 현대적 판타지」, 『오늘의 문예비평』 127호, 오늘의 문예비평, 2023년 봄호, 256면.

12) 전철희, 「『재벌집 막내아들』의 정치적 무의식」, 『동아시아문화연구』 92, 동아시아문화연구원, 2023, 156면.

스트가 사용하고 있는 회귀, 병의, 환생이라는 모티프이며, 이를 통해 구현되는 시간의 구조적 역학과 등장인물 중 주인공만이 갖게 된 ‘시간’의 의미와 효용이다. 폴 리콥르가 중요하게 언급한 것처럼 모든 이야기는 구조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경험이 갖는 시간적 특성”, 즉 “서술적인 작품이 전개하는 세계는 항상 어떤 시간적 세계”이기 때문이다. 리콥르의 주장처럼 “시간은 서술적 방식으로 진술되는 한에 있어서 인간의 시간이 되며, 반면에 이야기는 시간 경험의 특징들을 그리는 한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다.”¹³⁾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겪게 된 인간의 경험을 재현하는 이야기는 그의 경험에 상응하는 시간의 허구적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 체험된 사실, 역사적 시간 그리고 허구적 시간이라는 세 가지 시간성은 이 텍스트 안에서 지속적으로 경쟁하며 충돌한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판타지 계열의 작품이지만, 세계의 경험적 기율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현대 판타지이다. 기이한 과정을 통해 주인공이 과거로 회귀하는 시간 이동을 하였지만, 그의 회귀는 반복되거나 주인공의 특수한 능력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우연한 기회를 얻은 주인공이 살아가는 세계의 시간성은 독자들이 체험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역사에 기록된 것처럼 되고자 하는 시대 정신의 관성과 충돌하고, 결국에는 텍스트가 재현하는 허구적 시간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은 시간 이동을 통해 얻게 된 인생의 기회를 좀더 나은 세계를 창조하거나 세계의 비참을 만든 역사적 참사를 예방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문학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는 세계를 바꾸는 혹은 시간의 어긋남을 교정하는 정의로운 시간 여행자가 아니라, 역사적 위기—특히 경제적 위기—를 자신의 이익으로 환원하려고 세계의 미래를 전생을 통해 경험한 역사에 고정시키는 주인공이다. 게다가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은 경제적 이해득실을

13) 폴 리콥르, 김한석·이경래 옮김, 『시간과 이야기1-줄거리와 역사 이야기』, 문학과학서사, 1999, 25면.

윤리나 정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재탄생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인간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대한 이익 공동체, 즉 재벌의 총수로 등극하는 것을 추구한다. 『재벌집 막내아들』이 알려주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되어버린 신자유주의의 냉혹한 풍경이 아니라 이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경제적 권력자의 성장과 완성, 그가 습득하는 인간을 사용하는 통치술의 방식이다. 그리고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진정한 권력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의 영역에서 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지만 한국의 국가권력을 장기간 독점했던 군사 정권의 퇴진이며, 국가권력을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 업무를 처리하는 하나의 위원회”¹⁴⁾로 변모시킬 ‘민주화’이다. 이것이 『재벌집 막내아들』의 회귀가 1987년에 시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돈에 대한 사랑, 자본주의의 절대적 로맨스

『재벌집 막내아들』은 회귀, 빙의, 환생이라는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이다.¹⁵⁾ 여기서 말하는 ‘회귀’란 과거의 자신으로 가는 시간의 역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생’은 종교적 설명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처럼 새로운 누군가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며, 불멸하는 영혼이 통과하는 육체

14) 칼 맑스, 최인호 외 옮김, 『공산주의당 선언』,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제1권』, 박종철출판사, 1991, 402면.

15) 웹소설에서 흔히 사용되는 회귀나 환생의 모티프의 의미나 활용된 작품의 예시를 통한 설명은 여러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8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음성원·장웅조, 『웹소설에서의 회귀·환생 모티프 활용 연구-Vogler의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5,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22. 김미현, 『웹소설에 나타난 ‘회귀’와 ‘환생’의 욕망코드: 인과계층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연구』 4권2호, 미래학회, 2019.

의 반복적 형식이다. 다만 종교적 환생이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망각의 세례를 필수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면 허구적 서사에서는 망각하지 않은 기억을 통해 얻게 된 가능성과 우월성이 주인공의 능력으로 부여한다. ‘빙의’는 ‘회귀’의 대상을 고정된 자아에서 한정되지 않은 타인으로 확장하며 이를 통해 흥미로운 서사의 변주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경우에 따라서 ‘빙의’의 대상은 인물을 넘어 다른 세계나 상이한 사물이나 서사로의 자유로운 진입까지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를 작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감정은 ‘후회’나 ‘복수’ 같은 파토스적 정념이며, 이는 웹소설이 찾아낸 새로운 서사 형식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에서 고르게 창작된 환상적 허구 서사나 민담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¹⁶⁾

먼저 『재벌집 막내아들』의 시간적 구조를 보자. 이 텍스트는 순양그룹의 ‘미래전략기획본부’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윤현우의 현재에서 시작한다. “마흔”(1-26) 살의 윤현우가 1987년 열 살의 진도준이 된 자신을 “30년

16) 츠베랑 토도로프는 다양한 장르의 환상적인 서사에서 중요하게 취급된 테마들을 구조주의적으로 체계화하기에 앞서 이것들의 잘 알려진 목록을 로제 카유아의 저서에서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다소 긴 인용이 되겠지만, 이 흥미로운 분류는 각각의 항목 뿐만 아니라 이것들의 혼용을 통해서도 다양한 장르적 상상력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한다. “악마와의 계약(예로 『파우스트』), 자신의 안락을 위해 모종의 행위가 성취되기를 요구하는 괴로움에 떨고 있는 영혼, 황당무계하고 끝없는 여행을 하도록 운명지어진 유령(예로 『방랑자 멜모스』), 산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인격화된 죽음(예로 에드거 앨런 포의 「적사병 가면」), 정체불명이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향력을 가지고 현장에 존재하는 ‘사물’(예로 「오를라」), 흡혈귀들, 다시 말해 살아 있는 자들의 피를 빨며 영속하는 젊음을 보장받는 죽은 자들(수많은 예들이 있다), 갑자기 생명력을 부여받고 가공할 만한 독자성을 얻는 조각상이나 마네킹, 갑옷 혹은 자동인형(예로 「일르의 비너스」), 초자연적인 무서운 질병을 초래하는 마술사의 저주(예로 키플링의 「짐승의 표시」), 저 너머의 세계에서 태어난 매혹적이고 치명적인 여자 유령(예로 『사랑에 빠진 악마』), 꿈과 현실세계의 뒤바뀐, 공간에서 사라진 침실이나 아파트, 위층 집 혹은 거리, 시간의 정지나 반복(예로 『사라고사에서 발견된 원고』.” 이 목록에 담긴 “시간의 정지나 반복”이라는 분류가 알려주듯 ‘회귀, 빙의, 환생’ 같은 웹소설의 시간 모티프는 오래전부터 계승된 문학의 유산이다. 츠베랑 토도로프, 최애영 옮김, 『환상문학 서설』, 필로소피, 2022, 161-162면.

전 과거로 돌아온 것”(1-40)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자면 소설의 시작은 2017년이며, 윤희우는 자신과 같은 1978년 출생인 진도준으로 ‘빙의’ 혹은 다시 태어난 것이다. 윤희우가 진도준과 동갑이라는 사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윤희우가 가진 기억과 경험은 동갑인 진도준에게 거의 동시대적인 것이 된다. 특히 소설에서 진도준의 영리함과 지적 능력을 증명하는 장치로 활용된 서울대 법대 입학의 에피소드는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과목별 과외 선생을 동원한 결과인 동시에 같은 시험을 두 번 응시한 기연(奇緣)의 선물이다. 진도준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우월한 능력인 윤희우의 ‘기억’이 연령의 오차 없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 능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준다.

2017년에서 시작해 30년 전인 1987년으로 회귀한 서사는 진도준이 서른다섯 살이 되는 2012년 가을까지 진행되며,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순양그룹 전체의 소유주가 된 진도준이 윤희우가 죽은 몰도바의 호수에서 그를 애도하는 ‘에필로그’로 마무리된다. 이 전체 서사를 놓고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환생한 진도준이 쟁취하려는 삶의 목적이며 그 이유이다. 그것은 서사를 진행시키고, 독자들을 소설의 결말까지 읽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기에 필요한 질문이라고 판단된다. 진도준은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경영의 막중한 책임에서는 멀고, 막대한 재산의 향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안정적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순양그룹 전체를 소유하려고 하며, 기꺼이 자신에게 위협과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가족들과의 지독한 싸움을 선택한다. 처음에 이러한 욕구의 이유는 환생한 이후에도 “악몽”으로 반복되는 죽음의 고통과 원한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되는 복수의 “와신상담”(1-36)으로 설명된다. “몰도바 한적한 호숫가에서 머리에 총알을 박은 채 죽음을 맞이한 내가, 나를 죽이라고 지시한 집안의 열 살짜리 막내 손자로 환생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신은 내게 복수의 기회를 준 것일까? 아니면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니 용서하라는 뜻일까?”(1-38) 진도준은 자신의 환생을 설명할 수 없는 신의 개입으로 여기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지만, 환생의 이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뇌한다. 복수와 용서가 먼저 떠오르지만, 진도준은 이를 자신이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진도준의 새로운 갈망은 근대인이라면 누구나 꿈꾸었을 자아의 욕망을 추구하는 무한정한 자유와 이를 위한 끝없는 변화와 발전, 그리고 그것이 지독한 허무로 끝날지라도 그 끝까지 가보겠다는 삶의 태도이다. 진도준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꼭 악몽 때문만은 아니다. 전생에서 그렇게 꿈꿔왔던 인생,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돈으로 즐거움과 쾌락을 좇는 삶보다는 매시간 치열하게 쟁취하는 삶에 더 목이 마른다. 차례차례 적을 제거하고 나만의 성을 쌓아가는 인생, 그 끝을 한번 보고 싶다. 어쩌면 허무함만이 기다리는 끝일지라도.”(1-437) 경제적 안정과 그것이 약속하는 향락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향해 나아가는 끝없는 모험을 선택하는 삶의 자세는 근대인에게는 그리 낯선 것은 아니다. 문학의 영역에서 찾자면 이러한 근대적 영웅 계보의 가장 상석을 차지하는 사람은 ‘파우스트’이다.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한 늙은 노학자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부릴 수 있는 악마의 능력을 손에 얻는다. 무한한 즐거움을 약속하는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파우스트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고 하며 이렇게 말한다. “지식에 대한 욕구로부터 치유된 내 가슴이,/앞으로는 어떠한 고통이라도 피하지 않고,/전 인류에게 부과된 바를/내 내면의 자아로 향유하고자 함이로다./내 정신으로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것을 파악하고,/인류의 행복과 슬픔을 내 가슴에 쌓아올려서,/내 자신의 자아를 인류의 자아로까지 확대시켜,/결국은 인류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파멸하고자 함이로다.”¹⁷⁾

진도준의 인용한 대사에 담긴 끝을 모르는 욕망의 추구,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모험에 기꺼이 자신을 던지고자 하는 갈망에는 파우

17)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인용 옮김, 『파우스트』, 문학동네, 2006, 51면.

스트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분명한 정신적 유전자가 발견된다. 하지만 진도준이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쟁취와 모험은 “나만의 성”에 한정된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나 자아를 인류의 것으로 확장시키지도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인류의 행복을 고려하거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희생적 행동을 선택하지 않는다. 진도준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욕망의 제국을 축성하기 위한 돈이며, 모든 행동은 더 많은 돈을 축재하여 순양그룹을 소유한다는 목적에 봉사할 뿐이다. 진도준은 파우스트처럼 말하지만, 그의 실천이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물은 인류 공통의 재산이 아니라 사유 재산으로 귀속된다. 그는 철저한 자본주의자이며, 파우스트 같은 면모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세속적인 파우스트,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이비 파우스트이다.¹⁸⁾

이런 점은 『파우스트』와 『재벌집 막내아들』의 전체 서사를 비교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파우스트에게서 근대적 인간의 영웅적 초상을 발견한 마살 버먼에 따르자면,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파우스트가 보여주는 세 가지 변신과 이러한 과정의 경험이 축적되며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자아의 성숙, 그리고 마지막 서사로의 귀결을 통찰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말한다. “그는 처음에는 몽상가로 나타나며, 그런 다음에는 메피스토의 중재에 의해서 그 자신을 연인으로 변신시키고,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사랑의 비극이 끝난 후에 개발자로 자기 인생의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¹⁹⁾ 『재벌집 막내아들』의 진도준은 파우스트처럼 새로운 삶을 다시 사는 기연을 얻고, 진양철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가진 조력자의 신임을 통해 꿈꾸던 욕망을 성취하는 서사를 진행하지만, 결코 그 시간을 지식이나 교양의 형성에, 또는 자아의 내면을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우정이나

18) 이러한 사실은 방송과 신문 등을 이용해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어필하려는 진도준의 에피소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 마살 버먼, 윤호병·이만식 옮김,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1998, 45면.

사랑에 사용하지 않는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모든 서사는 단순하게 반복되는, 투자하고 성공하고, 더 크게 투자하여 더 크게 성공하는, 실패 없는 자본의 서사로만 채워져 있다.

이런 점에서 자본 서사의 주인공인 진도준의 모습은 흥미롭다. 그는 재벌집의 후계자이지만 그 어떤 과시적 소비도 하지 않는다. 그는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고, 과시적인 옷이나 향락을 즐기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집 막내아들’이지만 진도준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신봉자처럼 보일 정도로 지나치게 금욕적이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무한하게 증식하는 진도준의 재산과 이를 추구하는 금전적 욕망을 제외한다면, 진도준은 자아를 구성하는 다른 욕망에 지독할 정도로 무관심하다. 아버지 진윤기의 말처럼 진도준은 “할리우드를 쥐락펴락하는 투자사”(2-25)의 대표이지만 영화가 대중에게 미칠 영향이나 미적 완성도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진도준은 “그 흔한 대중음악, 팝송조차 듣지 않”으며, “돈 계산”(2-25)을 제외한 어떤 일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진도준은 연애에도 관심이 없고, 심지어 성적 욕망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진도준은 대학교 동기이자 사법시험에 통과해 판사가 된 서민영과 결혼하지만, 이 두 사람의 로맨스나 젊은이다운 성적 욕망이 발산하는 에피소드는 서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서민영은 주인공의 연인이지만 서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놀라울 정도로 적으며, 어떠한 에피소드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진도준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은 다른 경우에 쓰는 말이지만, 내 경우도 그렇다. 연애 감정이 말라 버린 중년의 정신이다 보니 이런 애들 신경전이 귀엽게만 보인다. 가끔 내 몸속의 남성 호르몬이 날뛰지만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그 호르몬을 억누른다.”(2-92) 진도준은 이 모든 이유를 젊은 육체를 차지하고 있는 “중년의 정신”의 탓으로 돌리지만, 이는 나이를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욕망에 비해 너무 빨리 소모되는 육체적 활력의 상실을 한탄하는 여러 이야기나 격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속일 수 없는 어설픈 핑계이

며 이치에 맞지 않는 허울뿐인 형이상학이다. 그렇기에 사랑이나 성적 욕망에 관심 없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 찾아져야 한다.

죽음을 경험하기 전 윤현우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말하며, 그것이 철저한 경제적 논리에 의한 결합이며, 이혼을 선택하지 못해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개인적 불행임을 분명하게 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따져 보자면, 연애와 사랑은 낭만적 감정과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실용적 소비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동의 작용이며, 결혼은 이혼이라는 재산 분할의 위험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모험이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진도준이 서민영과 결혼하는 이유는, 서민영을 진양철 회장이 손자며느리의 유력한 후보로 꼽아놓은 이유와 다르지 않다. 서민영의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법조계의 권력은 진도준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충분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진양철에게 진도준이 “돈은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기 때문인가요?”(1433)라고 대답하며 인정을 받는 에피소드는 중요하다. 진양철이 묻고, 진도준이 대답하는 것처럼 ‘돈’은 모든 욕망을 구매하고 소유하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인간의 행복감을 대변하는, 단 하나의 ‘물신(物神)’이다. 이 소설의 서사에 담긴 흥미로 볼 때 진도준의 재산이 무한하게 증식하는 과정은 진도준의 로맨스나 문화적 취향,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작은 에피소드들보다 훨씬 재미있으며, 대중적이다.²⁰⁾ 진도준이 전체 서사에서 돈을 유희이나 향락, 심지어 사랑이나 욕망을 구매하는 데 쓰지 않아도, 돈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서

20) 작가인 산경은 “『재벌집 막내아들』을 쓸 때는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욕심이 약간 있었다”고 말하며, 이 메시지를 “부의 목적이 뭐냐. 왜 현대인들은 돈과 부에 매달려 살까, 하는 점에 대해서 말이죠. 재벌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서 “과연 그 돈을 어디에 쓸 건데”라는 질문이 이제는 무의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이죠.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세상을 지배합니다”라고 쓴다. 산경, 『실패하지 않는 웹소설 연재의 기술』, 위즈덤하우스, 2019, 18면.

사의 마지막에 진도준은 자신이 세계 제일의 부자라는 사실을 밝힌다. 그는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못할 것이 없는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진도준이 순양그룹의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신탁의 변도식 사장을 만나는 장면은 돈의 압도적인 권능과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너무 많은 돈을 소유한 까닭에 가격을 통한 환산의 방식을 제외한다면 사물이나 인간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판명할 능력을 상실한 자아의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에피소드이다. 순양그룹의 지분을 거래하는 중요한 자리에 변도식 사장은 자신의 딸을 동반하고, 지분을 미끼로 딸과의 교제를 진도준에게 은밀하게 권유한다. 이런 변도식 사장의 모습을 모욕적이라고 느낀 진도준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사랑하는 딸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제시하라고 말한다. 변도식 사장의 딸은 이런 진도준에게 “지금 내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돈으로!”(5-317)라고 말하며 화를 내지만, 진도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다는 듯 이렇게 말한다. “이봐요, 아가씨. 사람의 가치를 돈 말고 뭐로 환산합니까? 연봉으로 남자 가치를 판단하는 게 결혼정보회사가 하는 일이지요. 교통사고로 사람 죽어도 합의금으로 털고, 몇천만 원 수술비가 없어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5-317) 진도준이 제시하는 가격은 100억에서 순차적으로 올라 1,000억이 되고, 변도식과 그의 딸은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그 가격에 매매하는 것을 동의한다. 누군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인생에는 있다고 말하며, 이런 서사가 지나치게 세속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치와 교환할 수 없는 소액의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했기 때문이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서사가 가진 대중적인 매력은 이러한 ‘물신인 돈이 무한하게 증식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서사가 채워져 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이 간절히 바라는 이야기가 돈에 대한, 정확하게는 돈의 끊임없는 증식에

대한 로맨스라는 것을 알려준다.²¹⁾

3. 역사를 수정하지 않는 시간 여행자

진도준을 세속적인 파우스트라고 할 때, 그에게 마법과 같은 힘을 주는 메피스토펠레스는 순양그룹의 회장 진양철이다. 진양철의 능력은 메피스토펠레스가 자신의 힘과 비견될 만한 것으로 찬미한 '돈'의 엄청난 소유이다. “가령 내가 여섯 마리의 말 값을 치를 수 있다면/그놈들의 힘은 내 것이 아니겠소?/그러니 나는 스물네 개의 다리라도 달린 듯/신나게 달릴 수 있는 당당한 사나이지요.”²²⁾ 메피스토펠레스의 말처럼 돈은 인간 능력의 확장이며 욕망과 인간의 생활, 생산관계 사이를 매개하는 강력한 끈이다. 진양철은 진도준에게 투자의 종잣돈이 되는 분당의 땅을 선물하는 동시에 돈의 의미와 활용법을 철저하게 교육시킨다. 매수와 협박, 횡령과 비자금 조성, 돈으로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은밀한 방법까지 진양철은 진도준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진도준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드는 것은 진양철의 유산이 아니라 죽은 윤현우가 가져와 은밀하게 진도준에게 전해준 '경험된 시간', 즉 '기억'이다. 윤현우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전생의 기억, 그중에서도 1987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억이야말로 진도준이 가진 진짜 힘의 정체이다. 그렇기에 환생한 진도준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윤현

21) '돈'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진행한 게오르그 짐멜은 '돈'이 현대인에게 의미하게 된 절대적 가치를 이렇게 쓴다. “우리는 일생의 대부분 동안 돈을 버는 것을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것을 염두에 두도록 지속적으로 강요받는데, 바로 이러한 강요와 더불어 삶의 모든 행복과 궁극적인 충족은 일정한 양의 돈을 소유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다. 그렇지만 돈의 목적적 성격이 이미 일정하게 높은 정도로 확고해진 경우에만 이러한 믿음은 확증되고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식 속에서 지극한 행복을 느낀다.”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옮김, 『돈이란 무엇인가』, 길, 2014, 30면.

22)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앞의 책, 53면.

우의 기억을 기록하는 것이다.

나는 아직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의 중요한 순간들. 즉, 순양그룹과 관계된 사건과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들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할 시간이 필요했다. 가만히 있으면 하루가 다르게 지워지는 기억이지만 되살리려고 노력하며 기록하다 보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사실까지 떠올른다. 지난 3개월간 빼곡히 기록한 노트만 두 권이 넘었고, 앞으로 이것은 나의 비밀무기가 될 것이다. (1-72~73)

진도준은 1987년 6월 29일의 선언 이후 노태우와 김영삼, 김대중 중에서 누구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진양철에게 세 사람 모두와 친분을 유지하라고 조언을 한다. 진도준은 노태우가 한국의 13대 대통령이 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통령을 역임할 것을 알고 있기에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양철에게 목장을 선물로 받으며 그 위치를 토지 개발의 호재가 없는 경기도 ‘원당’이 아니라 ‘분당’으로 결정한다. 분당에 신도시가 건설될 것을 알고 있는 진도준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고, 이는 이후 투자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된다. 이 모든 서사가 윤현우의 기억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전생의 윤현우가 “증권맨도 아니었고 월스트리트는 구경도 못”(1-232)한 평범한 사람이기에, 진도준의 투자는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역사의 큰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대중적 재미와 누구에게나 가능할 것 같은 투자의 설득력을 얻는 데 성공한다. 텔 컴퓨터와 구글의 창업자를 찾아가 누구보다 빨리 투자를 제안하고, 소프트뱅크의 손정의를 만나 지분을 매입한다. 흥행한 영화의 목록을 알고 있기에 영화에 대한 투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IMF를 대비해 달러를 사전에 매수하고, 헐값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부도난 회사들을 인수한다. 닷컴버블이 시작되기 전에 주식

을 매수하고 폭락하기 전에 매도한다. DMC(디지털미디어시티)를 미리 설계하고, 건설 수주와 부동산 매입으로 큰 수익을 올린다. 2002년 월드컵의 경기 결과를 알고 있기에 이를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에 활용해 돈으로 살 수 없는 홍보 효과를 얻는다. 9·11 테러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알고 있기에 주식의 하락과 채권 시장의 붕괴에 투자하고 한 국가의 예산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다. 진도준은 환생을 통해 새롭게 살게 된 삶이 죽기 전에 보았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가 담고 있는 “서민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돈이 넘쳐나는 부자들의 세상, 그것도 최상위 부자라는 재벌가”(1-116)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사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서사적인 전략은 〈응답하라 1988〉과 그리 다르지 않다. 독자들은 드라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경험한 친숙한 기억으로 초대되고, 과거의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던, 하지만 지금의 자신이라면 놓치지 않았을 기회를 활용하는 진도준을 보게 된다.²³⁾ 독자들이 구조적으로 동일한 에피소드가 반복되는 『재벌집 막내아들』의 서사에 매혹되는 것은 진도준의 에피소드가 예상도 하지 못했던 모험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과거에는 미처 몰랐고, 지금은 너무나도 잘 알게 된 인생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자면 진도준의 축재(蓄財) 서사는 미래를 알고 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시간 여행자의 익숙한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진도준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 『재벌집 막내아들』이 기존의 시간 여행자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서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잘 알려진 시간 여행의 이야기는 대부분 후회

23) 작가 산경은 “『재벌집 막내아들』은 25년간의 역사를 다룬 역사물과도 같기 때문에 25년간 한국과 세계에서 발생한 사건을 연도별로 조사했습니다. 주인공 진도준이 회귀하던 첫날은 1987년 6·29 선언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1987년부터 매년 일어났던 사건들을 전부 따로 조사했습니다. 연도별로 방송사에서 발표했던 10대 뉴스를 전부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연도별로 다 찾았습니다”라고 쓰며, 『재벌집 막내아들』의 서사가 잘 알려진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산경, 앞의 책, 65면.

와 오류, 파멸적 결과를 가져온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를 저지하고, 이를 통해 시간의 어긋남을 바로 잡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시간 여행 서사의 대표적 작품 중 하나인 스티븐 킹의 『11/22/63』(2011)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 1963년 11월 22일 벌어졌던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암살을 막으려고 과거로 회귀하는 시간 여행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16년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던 드라마 <시그널>에서 2015년을 살고 있는 경찰 박해영의 고장난 무전기로 들려오는 과거의 목소리는 미제로 남게 된 사건을 해결하라는, 그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어긋나버린 미래를 되돌리라는 죽은 자의 염원과 같은 것이었다.²⁴⁾ 웹소설의 회귀물도 그리 다르지 않다. 2019년부터 네이버 시리즈에서 연재를 시작해 2023년 현재까지 5억 회의 조회수를 달성한 『화산귀환』에서 매화검존 청명은 마교의 교주 천마를 죽이지만 큰 부상을 입고 함께 죽는다. 알 수 없는 기연으로 100년 후 초삼이란 이름의 거지의 몸으로 환생한 청명은 자신의 자랑이던 '화산파'가 과거의 명성을 거의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를 한다. 시간 여행자가 과거로 회귀하든 아니면 미래로 가는 상관없이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달라진 역사를 바꾸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고, 이러한 모험은 시간 여행을 다룬 서사의 특별한 개성과 흥미 요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재벌집 막내아들』의 진도준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를 바꾸지 않으며, 그것이 그 시간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참혹한 고통이고 아픔일지라도, 역사가 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24) 자크 데리다는 '유령'에 대한 문학적 고찰을 진행한 글에서, 유령이 현실에 등장하거나 개입하는 이유를 의미 있게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인간은 삶을 오직 타자나 죽음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대상이 현실의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르게, 더 낮게 살기, 아니 더 낮게 살기가 아니라 더 정의롭게 살기"의 의미이다. 자크 데리다, 진태원 옮김, 『마르크스의 유령들』, 그린비, 2014, 12면.

집에 와 노트를 펼쳐 놓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지금껏 기록한 미래의 디테일한 일들이 어찌면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른다. 나라는 존재 자체에 이미 큰 변화가 있었다. 태어났어야 할 나 윤현우의 자리에 영똥하게도 현지라는 외동딸이 자리 잡았다.

거창한 나비 이론을 끌어다 쓸 필요도 없다. 이미 나를 좋아하는 진양철 회장의 마음만으로도 미래가 바뀔지 모르는 일이다. 미래가 바뀐다는 것은 내가 가진 강력한 무기가 무의미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젠장.’

앞으로 행동과 말 그리고 계획은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미래의 큰 물줄기는 변하지 않아야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길 수 있다. 세상은 바꾸지 않되, 순양그룹만 바꿔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순양그룹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1-95-96)

2004년 영화 <나비효과>에 서사화된 것처럼 시간은 셀 수 없는 원인과 결과의 뒤영킴이다. 그것 중 하나만 어긋나도 미래는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변해버린다. 진도준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최대한 수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1997년의 IMF가 한국인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통을 주었는지 그 시절을 살았던 윤현우는 기억하고 있지만 진도준은 그 기억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용할 뿐 역사의 결과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서사만 놓고 보자면, 진도준은 가족이나 투자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그 누구와도 친분을 쌓지 않는다. 진도준은 친구도 없고, 서민영을 제외한 어떤 여자와도 만나지 않는다. 진도준은 바쁘게 돌아다니며, 투자를 계획하고, 진양철 회장을 만나 돈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미래 클인베스트먼트의 오세현과 함께 사업에 대해 논의하지만, 서재나 사무실 같은 한정적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들과의 만남이 이 방대한 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다른 공간과 다른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

글에 투자하기 위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을 찾아가 투자를 약속하고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에피소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미래를 바꾸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진도준의 계산적 면모를 잘 보여준다. “더 큰 욕망에 사로잡혔다가는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사라질 수도 있다. 내가 아는 미래가 바뀌지 않을 만큼만 움직이고 욕심내자. 딱 이 정도까지만… 더는 안 된다.”(2-491) 하지만 큰 욕심을 절제하며, 투자를 이어가는 진도준의 모습이 끔찍한 세계의 비극이 결부되면 이러한 안정적인 자본가의 면모는 그 안에 감춘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환된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잡은 내 손이 주저하는 이유는 하나였다. 타인의 비극이 주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어차피 막을 수도 없는 타인의 비극이다. 누군가는… 아니, 투자라는 세계에 몸담은 수십, 수백만의 인간들 중 누군가는 이 비극 때문에 돈을 벌 것이며 더 많은 누군가는 돈을 잃을 것이다. 나 역시 이 세계에 몸담고 있다. 둘 중 어느 한쪽에는 서야 한다. 그렇다면 잃는 쪽에 설 수는 없는 일 아닌가? (4-19)

“2001년 8월 23일”(4-18), 9·11 테러가 벌어지기 “정확히 19일”(4-19) 전에 진도준은 미국과 일본, 한국의 주식 차트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진다. 당연히 그는 9·11 테러가 벌어질 것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 진도준은 말과 행동, 계획을 신중하고 조심하게 했고, 그 결과 세계는 외형적인 큰 변화가 없다. 9·11 테러는 인류의 비극이지만 투자에 몸담은 그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주식시장의 거대한 변동이다. 진도준은 자신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없고, 누군가는 이 비극을 이용해 돈을 벌고, 돈을 잃을 것이기에 주식이 하락하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푹옵션”(4-25)에 돈을 투자하고, 이 테러 사건으로 “우리나라 증시보다 더 큰”(4-26) 금액을 벌어들인다. 진도준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말하고, 희생자들을 위해 “1억 달

러”(4-27)를 기부하지만, 동료 레이첼의 지인들이 이번 사건으로 많이 희생된 것에는 별다른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진도준의 말처럼 테리는 “어차피 막을 수도 없는 타인의 비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이 진도준의 말처럼 불가항력적인 “타인의 비극”인가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진도준은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이 쌓여갈수록 그가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대된다. 소설의 몇몇 에피소드에서 보았던 것처럼, 진도준은 고모부 최창제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하며 정치적으로 무능한 그를 서울시장에 당선시켰고, 미국 정치가들의 무능과 부패를 비난하는 동료 레이첼에게는 원하면 정계에 진출하라고 자신이 선거자금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그가 진짜 이 비극을 막으려고 했다면 그가 가진 돈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후회와 고민, 큰 액수의 기부금이 알려주는 것은 진도준의 고뇌가 아니라 그가 세계의 비극을 묵인했다는 사실을 합리화할 수 있는, 독자들의 분노나 미움을 돌릴 수 있는, 특별한 표현이나 감정이 소설에 필요했다는 사실 뿐이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긴 서사에서, 그것이 담아내는 25년의 시간과 사연들 속에서 진도준은 딱 두 번 눈물을 흘린다. 하나는 전생의 윤현우가 환생의 과정을 겪으며 태어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부모님과 인연이 사라졌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진양철 회장이 죽었을 때이다. 진도준은 전생의 기억을 현재의 재산으로 환전하며, 인간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감정을 소모한 인간이다. 사람들이 그를 “미다스의 손”(1-232)이라고 부르는 것은 투자에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가 황금을 대가로 상실한 인간적 감정과 가치를 판별하지 못하는 둔감한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도 이 별명은 적절하다.

4. 민주화 이후의 자본주의 그리고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통치술

『재벌집 막내아들』의 서사가 담아내고 있는 시간은 순양그룹의 미래전략기획본부 실장인 윤현우가 죽음을 맞는 2017년에서 시작해, 30년 전인 1987년으로 회귀한다. 윤현우는 열 살의 소년 진도준으로 환생하고, 진도준은 스무 살인 1997년에는 IMF를, 서른한 살인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 그리고 2012년 가을 순양그룹의 완전한 소유주가 된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윤현우가 죽고 진도준으로 태어난 곳”(5-526)인 몰도바를 찾은 진도준이 일종의 장례를 마치고 “이제 죽은 자는 잊고 산 자로 돌아가야겠다”(5-527)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소설이 담고 있는 시간의 경험이 『재벌집 막내아들』을 읽는 독자들이 경험한 시간과 그다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정은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서사의 사건과 행동이 주인공의 행동력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열 살 소년은 서사에 많은 제한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한은 소설의 주요 서사를 이루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제약적이다. 소년 진도준은 부모의 동의나 허락 없이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고, 토지 매매도 어려우며, 장거리 이동이나 투자에 참여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윤현우는 왜 1987년으로 회귀하였는가. 소년이 가진 서사적 제약을 감수하면서도 이 시간으로 회귀한 이유는 무엇인가.

진도준이 진양철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6·29민주화선언’의 사흘 전인 “1987년 6월 26일”(1-36)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은 그날이 진양철 회장의 생일파티가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설에서 순양그룹은 한국경제와 “공동 운명체”(1-22)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의 재벌이지만, 그 시작은 금은방에서 세공일을 하는 진순철, 진양철 형제가 주인 몰래 빼돌린 금가루였다. 해방을 맞이한 후 형제는 “조선미곡창고”(1-23)를 불하받은 후 보관된 쌀을 몰래 팔아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고, 이후 미군정

의 원조금과 구호물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시킨다. 이렇게 탄생한 순양그룹은 군부 정권과 결탁하며 거대한 규모의 재벌로 성장한 것이다. 1987년 6월 진양철의 고민은 폭정을 거듭하는 군부 정권의 독재가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면 어떤 사회가 도래할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부 정권에 의한 독재와 폭압적인 시책은 한국 근현대사의 모순이 발생한 지점이고 역사적 상처이지만 진양철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축적하고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민간 부분의 시장이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했던 사정 때문에 한국의 산업화는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국가에 의해 선별적으로 육성된 소수의 기업이 거대한 재벌로 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²⁵⁾ 그렇기에 '6·29민주화선언'으로 시작되었던 한국의 민주화는 진양철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로의 진입이며, 안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혼란의 시작이다. 진양철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한국의 민주화가 가져올 사회의 변화가 아니라 그것이 순양그룹의 성장과 축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진양철의 걱정과는 다르게 민주화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의 시대보다 강화되었다. 최장집은 이렇게 쓴다.

재벌체제는 민주화로 인해 약화되었는가 아니면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강화되었는가?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상위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이익과 관점은 지배적인 담론이자 이데올로기로서 헤게모니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 통제되던 언론과 대학은 이제 재벌의 영향력에 의해 압도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²⁶⁾

25) 박형준, 「한국 자본주의 권력의 형성」,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 책상상, 2013, 223-284면 참조.

26)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2002, 167면.

군사 정권 시대에 경제적 이득은 정경유착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된 재벌의 독점적 이윤이 되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나 행정 관료에게 주는 뇌물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다보니 기업의 운명은 위정자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었다. 죽음을 앞둔 진양철이 진도준에게 들려주는 “동명그룹”의 이야기는 이러한 권위주의 사회의 독점적 이윤 뒤에 가려져 있던 기업가의 공포를 단적으로 알려준다. “동명그룹, 잘 알고 있다. 70년대 중반까지 압도적인 재계 서열 1위였던 기업이다. 신군부가 들어서자마자 표면상 국가 헌법의 형태로 강탈당해 어이없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말이다. (...중략...) 20여년 전만 해도 권력이 기업을 무너트릴 수 있었다. 그만큼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제 대기업 집단의 규모는 정권이 어찌할 수도 없을 만큼 비대해졌다.”(4-277) 재벌은 권위주의 정권과의 협력을 통해 탄생할 수 있었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글로벌한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점적 정치권력을 소유한 집단이 사라져야 했던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재벌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익집단으로 성장시킨 또 다른 요인은 1997년 IMF를 통해 진행된 세계화, 즉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변화이다. IMF는 한국사회에 시장자유화, 민영화, 탈규제, 긴축재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한국인들의 생활방식과 태도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²⁷⁾ 진도준은 미래의 지식을 바탕으로 IMF가 가져온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나 위기는 끝났지만, 한국은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평생 직장 개념은 사라졌고, 개인의 삶은 돈의 무게에 따라 달라졌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소비는 생활이 아니라 부의 과시 수단으로 변질되었

27)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고 형성되는 과정은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자유화, 지구화 그리고 IMF 위기」,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을 참조하였다.

다. 사치품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느새 명품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구조조정이 고용 불안정, 비정규직,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켜 노동 소득은 급격히 위축했다. 부의 불평등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시작되었다. 빈자들의 소비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하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유동자본이 형성됐다. 수백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유동자본은 IT 붐의 붕괴 이후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으로 이동해 전국적인 투기 광풍을 불러 왔다.

물론 현재의 부동산 광풍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다. 미국발 초저금리 정책은 시장에 유동성을 과다 공급하였고, 이러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가 거품이 발생한 것도 그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과는 참혹해 이제 집 한 채 갖는 것조차 포기해야 하는 세대가 등장한다. (418~19)

진도준이 안타깝다는 어조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생의 윤현우가 순양그룹의 “머슴”이나 “노예”였다고, 환생한 진도준이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믿음에 가깝다. 순양그룹의 진정한 오너가 된 진도준은 다를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신분제의 붕괴에 따른 해방을 하늘의 축복이라고 믿는 노예의 빈곤한 상상력에 불과하다. IMF를 거쳐 한국에 정착한 신자유주의는,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경제적 이윤에 종속된 한국인은, 진도준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며, 전생의 윤현우가 그랬던 것처럼, 적당한 보수만 주면 머슴이나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를 제공하는 사회로의 전환이다.

민주화와 IMF의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한국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다양한 관점의 시각과 이를 통한 유형화가 가능하겠지만, 경제학을 통해 정의하자면 이들을 지칭할 수 있는

정확한 명칭은 ‘경제인(economic human)’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처음 사용한 이 용어는 인간의 본성을 경제적 면모로 설명하려는 방식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윤리적 고려나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순전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이라고 이들 경제학자들은 주장한다. “즉 이기적 동기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인간이 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이다.”²⁸⁾ 인간과 사회를 이해득실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제학의 방법론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간이 윤리나 종교의 가면 뒤에 숨긴 냉정한 계산의 심정을 알려준다는 것만 있지 않다. 오히려 문제적인 것은 이것이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의 방식과 통치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미셸 푸코는 정치경제학적 방식으로 근대의 통치와 고전주의 경제학에 토대를 둔 자유주의,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신자유주의에 대해 고찰한 후 이렇게 쓴다.

주체를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만 다룬다는 것은 주체 전반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 주체를 고려한다는 것은 인간학적 방식으로 모든 행동양식을 경제학적 행동양식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개인의 행동에 관한 분석에 부여되는 인지가능성의 격차가 바로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인 한에서, 그리고 오직 호모 에코노미쿠스인 한에서만 그 개인이 통치가능화되고, 그 개인에게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과 개인에게 행사되는 권력 사이의 접촉면, 결론적으로 권력이 개인을 조정하는 원리는 바로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그런 종류의 틀

28) 조준현,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찾아서」, 『인물과 사상』, 인물과사상사, 2012년 4월, 148면.

일 뿐인 것입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는 통치와 개인의 경계면인 셈입니다.²⁹⁾

푸코에 따르자면, 통치성은 그 대상의 자연본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 통치의 방식이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고유한 가치나 믿음을 훼손하거나 저해한다면 필연적으로 통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개인의 자연본성을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이해한다면, 통치는 이러한 개인 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총합이거나 연속선상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푸코는 이러한 통치의 체제와 실천이 작동하는 합리성의 공간을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시장'이라 부르며, 안정적인 시장의 자유경쟁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통치의 영역에서도 공정한 것과 부당한 것을 판별하는 진실의 척도—그것이 헛된 믿음이나 불평등한 구조를 고착화하는 신념 체계일지라도—를 만든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와 개인의 경계면”이 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가진 경제적 합리성이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진양철 회장이 보여주는 통치의 방식은 그가 성장한 권위주의 시대의 방식과 그리 다르지 않다. 순양그룹의 비서실장이지만 진양철의 신뢰를 통해 실질적인 이인자의 역할을 하는 이학재는 진도준에게 진양철이 사람을 부리는 방법의 핵심을 “두려움”(1-150)으로 설명한다. “회장과 경영자는 다르다. 경영자는 회사를 살찌우지만, 재벌 회장은 돈을 버는 게 아니다. 회장은 전쟁을 한다. 미워하는 적을 무릎 꿇리고 영토를 지키고 넓히는 것이 회장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정복한 영토에서 머슴들이 농사를 지어 돈을 번다. 회장님이 원하면 가족 따위는 내팽개치고 달려 나와 꼬리를 흔들게 만들어야 한다.”(1-150~151) 진양철이 자신의 권력과 금력을 통해 두려움을 형성하여 사람들을 부렸다

29) 미셸 푸코, 오토르망(심세광, 전해리, 조성은) 옮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도서출판 난장, 2012, 352-353면.

면, 민주화와 IMF를 통과한 진도준은 철저한 경제적 거래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한다. 진도준은 자신을 조사하는 부장검사를 회유하며, 취조실을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바꾼다. “검사인 척하는 놈은 필요 없다. 철저한 장사치가 필요하다. 장사치는 이문 남는 거래처에는 절대 등 돌리지 않으니깐 말이다.”(3-220) 진도준이 찾는 “철저한 장사치”의 정확한 명칭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이며, 그는 “믿음, 신뢰, 의리... 이따위보다 서로 만족하는 거래가 훨씬 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원동력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다.”(3-220) 만족하는 거래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관계, 『재벌집 막내아들』이 알려주는 것은 단순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경제주체에 대한 비판이나 이를 통한 자기 반성이 아니다. 그것은 통치의 정당성이 종교적 신념이나 윤리적 믿음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합리성에 통해 정립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이며, 그러한 사회가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진양철의 시대보다 진도준의 시대에 순양그룹의 외양이 비교할 수 없이 확장되고, 국가가 좌지우지할 수 없을 만큼의 공고한 사회적 지배 구조를 확립했다는 사실은 진양철의 “두려움”보다 진도준의 “거래”가 훨씬 더 효율적인 통치의 방식이 되었음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1987년의 민주화와 1997년의 IMF,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 그리고 세계화. 『재벌집 막내아들』의 회귀에서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최장집이 설파한 것처럼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퇴보했기 때문이며,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혼란이 진정한 축제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벌이었던 순양그룹이 이 시기를 거쳐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의 임기보다 더 장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하게 된 것은, 역설적이지만 1987년 이후이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담

아내고 있는 진도준의 이야기와 이것이 선사하는 독서의 흥미가 마냥 즐겁지 않은 것은 순양공화국에서 순양왕국으로의 반역사적 성장이, 국민이 가진 가치와 인간을 바탕에 둔 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진도준은 “윤현우의 장례”를 진행한 후 “이제 죽은 자는 잊고 산 자로 돌아가야겠다. 윤현우가 아닌 진도준으로...”(5-527)라고 말한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서사 전반에 미약하게나마 흐르던 역올하게 죽은 자의 사념이 사라진 자리에서 진도준의 순양그룹이 출발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동시에 불길하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산경, 『재벌집 막내아들 1~5』, 테라코타, 2022.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인웅 옮김, 『파우스트』, 문학동네, 2006.

2. 논문

- 김경애, 「'보는' 소설로의 전환, 로맨스 웹소설 문화 현상의 함의와 문제점」, 『인문사회21』 8권4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1367-1387면.
김미현, 「웹소설에 나타난 '회귀'와 '환생'의 욕망코드: 인과계층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연구』 4권2호, 미래학회, 2019, 155-185면.
박지희, 「한국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시대 현실 재현 양상 연구」, 『인문콘텐츠』 66, 인문콘텐츠학회, 2022, 151-173면.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8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279-307면.
음성원·장응조, 「웹소설에서의 회귀·환생 모티브 활용 연구-Vogler의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5,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22, 39-72면.
이시성,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이 보여주는 성과주체의 현대적 판타지」, 『오늘의 문예비평』 127호, 오늘의 문예비평, 2023년 봄호, 241-258면.
전철희, 「『재벌집 막내아들』의 정치적 무의식」, 『동아시아문화연구』 92,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3, 145-165면.
조준현,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찾아서」, 『인물과 사상』, 인물과사상사, 2012년 4월, 143-161면

3. 단행본

- 김휘빈, 『웹소설 작가 서바이벌 가이드』, 이마, 2017.
박형준,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 책세상, 2013.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2002.

마살 버먼, 윤호병·이만식 옮김,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1998.

미셸 푸코, 오토르망(심세광, 전해리, 조성은) 옮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도서출판 난장, 2012.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사진의 작은 역사 외-발터 벤야민 선집2』, 길, 2007.

폴 리콤프, 김한식·이경래 옮김, 『시간과 이야기1-줄거리와 역사 이야기』, 문학과지성사, 1999.

프랑코 모레티, 김용규 옮김, 「소셜-역사와 이론」, 『멀리서 읽기』, 현암사, 2021.

프리드리히 엥겔스, 이재만 옮김,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 라디오, 2014.

<Abstrac>

Capitalism after Democratization, 'Accumulate! 1987'

— Focusing on the web novels *The Youngest Son of a Chaebol Family*

Suh, Hee-Won

The Youngest Son of a Chaebol Family is a fantasy-based work, but it is a modern fantasy in which the world's empirical discipline is treated as important. The protagonist of *The Youngest Son of a Chaebol Family* does not use the opportunities of life gained through time travel to create a better world or to make the historical tragedy of making the world miserable. He is not a time traveler who changes the world or corrects the deviation of time found in literary tradition, but rather a protagonist who fixes the world's future in order to return the historical crisis, especially the economic crisis, to his own interests.

In addition, the main character of *The Youngest Son of a Chaebol Family* does not stop at being reborn as Homo Economicus, who values economic interests and gains and losses more than ethics or justice. He seeks to become the chief executive of a huge community of interests that governs and governs economic humans. What this work teaches is not the harsh landscape of neoliberalism in which all members have become Homo Economicus, but the growth and completion of the powerful who governs and governs it, and the method of governing using humans he acquires. And what is needed for the real power to dominate Homo Economicus to be born in the realm of the economy, not in the realm of

politics, is the resignation of the military regime, and 'democratization' that will reasonably transform it. This is also why the return of *The Youngest Son of a Chaebol Family* began in 1987.

Key words: Web novels, time and story, *chaebol*, Capitalism after democratization, Homo Economycus

투 고 일: 2023년 8월 20일

심 사 일: 2023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9월 18일